

확산세 코로나 진정국면 들어섰나

19일 2명 신규확진... 6월들어 1일 감염 가장 적어 20일도 3명 예상... 최근 신규확진자 감소세 확인

지난주말 제주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내에서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20일 오후 5시까지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233명으로 늘었지만 최근 들어 도내 감염자 수가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를 유

지해 이달 초 나타났던 대규모 확산세가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19일 도내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지난 5월 1일과 2일 각각 1명씩 확진돼 그달 최소치를 기록한 후 50일 만에 월별 기준으로 최소 확진자 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 나타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20일 양성 판정

을 받은 3명 중 1명(1231번)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1232번)은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 또 다른 1명(1233번)은 해외입국자로 조사됐다.

또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1229번)은 업무차 입도한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또다른 1명(1230번)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으로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카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

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반응 의심 사례 1건이 추가됐다. 해당 환자는 80대로 지난 5월 27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어지러움, 두통 등의 일시적인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 16일에는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따라 도보건의당국은 이 환자를 상대로 긴급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7월부터 노마스크, 제주는 예외” 도, 8월말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오는 7월 3분기에 접어들어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이들에 대한 접종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정부 방침에서 일부 제외되는 등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백신 인센티브’ 계획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백신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노 마스크’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강구한 접종 혜택과 달리 8월 31일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도내 해수욕장 12개소가 개장돼 관광객 등 인파가 몰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방역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역 관광지 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형 백신 인센티브 관련 1차 계획을 수립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인증하는 코로나19 ‘접종 배지’ 제작, 배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김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첫 공직자윤리법 재판 “취업제한 기관 아니고 담당업무도 달라 무죄”

퇴직한 공무원이 민관기회단에 합류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에서는 첫 공직자윤리법 재판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3일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은영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하다가 같은해 6월 30일 공무원을 퇴직했다. 이어 퇴직 하루 만에 공무원 시절 보조금 업무를 취급했던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예산 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맡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심 부장판사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또 민·관합동추진단의 운영보조금 관리 등은 A씨가 맡은 총괄기획실장이 아닌 사무장의 업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해수욕장은 이미 한 여름 20일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는 관광객 등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 여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희만기자

각급학교 등교인원 27일까지 제한

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이 주춤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운 등교수업 방안이 적용·연장되면서 학교별 공동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8일까지 전체 314개교(유치원 포함) 중 60개교에서 전교생의 2/3 등교수업이 이뤄졌다. 이 중 유치원생과 초1~2학년·고3 학생은 매일 등교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일부 학교는 전체 또는 부분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됐다. 오은지기자

도교육청 “일단 1주 연장 추후 상황 지켜보며 결정”

제주지역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추가 연장되면서 이와 연동된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 조정할 기존 학사운영 방안이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책기획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에서 현재 학사운영 방안을 추가 연장을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0일까지 열흘 더 연장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일단 1주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교육청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최근 학교내 코로

기초학력 미달 초등 462명

코로나19 2년차인 올해 개학 이후 실시된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462명이 기준 점수에 미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1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4월 기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3R's-읽기, 쓰기, 기초수학) 진단 검사 결과 전체 학생 2만8116명의 1.64%인 462명(초3 308명, 초4 97명, 초5 40명, 초6 17명)이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온라인 개학으로 6월 등교수업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6월 기준) 결과 기준 미도달 학생수는 2만7592명의 1.14%인 314명이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지역 돌파감염 3명 아닌 2명”

도, 질병관리청 발표 반박

제주도가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3명이 돌파감염됐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도내 돌파 감염자는 3명이 아닌 2명이라고 반박했다.

돌파감염은 각 코로나19 백신별 권장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배포

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돌파 감염자는 2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자는 총 29명으로 이중 3명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에월읍 양돈장에 불

20일 오전 8시14분쯤 제주시 에월읍 교성리 소재 양돈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 사진 이 화재로 돈사 1개동(2035㎡)이 소실됐다. 현재 제주소방당국은 소

실된 돈사에서의 폐사 규모 등 피해 현황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화재로 검은 연기가 평화로 인근지역에 크게 피어오르면서 관련 119신고가 수백여건 접수됐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반원으로 실천하여 소상공민 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지역주민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윌정리 카페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